

서울샘터 교회 주보

2019년 4월 7일

교회력(다해), 전체 19주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다섯째 주일 부활절 성령강림절 창조절

☞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요 12:7,8).



미국 뉴욕 맨해튼의 한 풍경, 대구성서아카데미 회원으로(닉네임 예베슈) 미국 교포인 한 분이 직접 찍어 대구성서아카데미 사이트에 올린 사진(2019년 3월23일), 어디서 어떤 형태로 살든지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똑같지 않을는지, 가로등이 예쁘다.

예배처소
공동예배
간식 / 친교
교우모임
목사
홈페이지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54길 18 (대방동) 여성플라자
4:00~5:00

5:00~5:20

5:20~6:20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http://dabia.net/x/churchs>

이번주는
4층 아트갤러리 5실

개회예전

예배의 부름 ... 목사

북미 인디언들은 말을 타고 가다가 중간에 잠시 멈췄다고 합니다. 너무 빨리 달리다가 자신의 영혼이 뒤따라오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현대인들은 무한 질주의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영혼 없이 살려고 작정한 게 아닐는지요. 오늘 우리는 일상을 단절하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찬송 10장 (전능왕 오셔서) 1,2,4절 ... 다함께

*공동기도 ... 다함께

창조와 사랑의 능력이신 하나님,
지금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소리 높여 찬양하기 위해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이 약속한 시간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인류 구원의 가장 참되고 궁극적인 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은총 앞에서,
우리는 놀라움과 기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세상에 말과 삶으로 증언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런 믿음과 사명을 공유한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시오.
이제와 영원토록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그리고 최후의 생명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새로운 예배찬송 469장(거룩송) ... 다함께



***사죄기도 ... 다함께**

목사: 사랑이 끝없으신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주십시오. 부활 생명을 약속으로 받았는데도 여전히 죽음의 유혹과 강요에 사로잡힐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요구에 길들여진 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망각할 때가 허다했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경쟁력으로만 평가되고 있습니다. 보이는, 또는 보이지 않는 폭력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이 사태 앞에서 우리 예수 믿는 이들도 무기력할 때가 많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전하지 못했습니다. 틀에 박힌 방식으로 사람과 사물을 대하면서 살았습니다. 생명 사건에서 무력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다함께**

***사죄선포 ... 목사**

목사: 우리의 하나님은 자비가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이제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자비와 2천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뢴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이웃의 잘못도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함께**

감격하여 이강민

영 - 광 을 주 님 께 영 - 광 을 주 님 께
높 이 계 신 주 님 께 영 광 -

***평화인사 ... 다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찬송 국악찬송 84장 (사순절) ... 다함께

김안식

류형선

중모리(약간 느리게)

1. 사 순 절 사 십-일 을 손 째 아 가 며 -
2. 사 순 절 사 십-일 을 손 째 아 가 며 -
3. 사 순 절 사 십-일 을 손 째 아 가 며 -

고 난 의 예 수-님 을 생 각 해 봐 요 -
고 난 의 예 수-님 을 생 각 해 봐 요 -
고 난 의 예 수-님 을 생 각 해 봐 요 -

채 째 에 맞으신 우 리 예 수 -님 - 온 - 몸 을
십 자 가 어깨에 지 신 예 수 -님 - 쓰 러 지 고
십 자 가 못박혀 달 린 예 수 -님 - 우 리 죄

찢 기 -시 고 아 파 하 셧 죠 -
님 어 -지 며 결 어 가 셧 죠 -
사 하 -시 고 숨 이 지 셧 죠 -

예 수님 예 -수-님 사 랑 해 요 -
예 수님 그 -은-혜 감 사 해 요 -

말 씬 예 전

설교전기도 ... 다함께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악한 영은 틈타지 말게 하시고,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만이 함께해주시시오. 말씀을 받들어 읽는 이와 그것을 해석하여 전하는 이, 그리고 듣는 우리 모두 말씀 안에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1독서 이사야 43: 16-21 ... 김용성 집사

성시교독 시편 126편 (새로운 예배시편 번역) ... 다함께

시온성의 포로들을 주님께서 옮기실때 우리들은 한결같이 꿈꾸는자 같았었네
-바로그날 입에서는 웃음꽃이 피어나고 혀에서는 우렁차게 기쁜찬송 터졌다네
 바로그때 못백성들 크게놀라 말하였네 주님께서 저들위해 엄청난일 하셨구나
-주님께서 우리위해 놀라운일 하셨을때 우리들은 그얼마나 감격으로 기뻐던가
 네겟땅의 시내들에 물이다시 흐르듯이 포로였던 저희에게 주여번영 주옵소서
-눈물방울 흘리면서 애써씨를 뿌린사람 기쁨으로 웃으면서 수확크게 거두리라

제2독서 빌립보서 3: 4-14 ... 김용성 집사

*제3독서 요한복음 12: 1-8 ... 김용성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함께



찬송 나 주 위해 살리라 ... 샘터중창단

설교 마리아와 가롯 유다 ... 이춘우 목사

설교후기도 ... 다함께

하나님, 인생살이에서 생각할 것들이 많습니다. 어떤 데에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지도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역사의 신비로 구원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모든 것 중에서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51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 다함께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2절 ... 다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494장 (만세 반석 열리니) 3절 ... 다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사순절 다섯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으니 여러분은 각자 일상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일상은 때로 고단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알리는 말씀]

- * 예배 후 반별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 사도신경해설 반, 신학과 철학 반, 기도와 교제 반, 청소년 반

- * 4월 예배 후 모임 안내
- 4월 7일 : 반별 모임
- 4월 14일 : “설교 한 걸음 더 들어가기” 시간 후 공동식사
- 4월 21일 : 부활절 (전 교우 모임- 예배 휘장으로 교회력 따라가기)
- 4월 28일 : 반별 모임

지난주일 헌금 440,000원(주일헌금: 340,000원, 통장헌금: 100,000원)
(2019/3/31) 헌금입금계좌 : 우리은행 1002-252-788537 이기령

3월 재정보고

수 입			지 출	
주일헌금	1주	443,000	담임목사 교통비	300,000
	2주	240,000	강사비	900,000
	3주	350,000	대관료	451,440
	4주	350,000	주보비	40,000
	5주	340,000	교육비	70,000
통장헌금		1,100,000	구제비(채움누리학교)	50,000
선교헌금		100,000	선교비(뉴스엔조이,새물결플러스)	100,000
			간식	106,000
			성화 휘장(총 14점)	230,000
수입계		2,923,000	지출계	2,247,440
*수입-지출	(675,560)		전월이월액	2,334,989
			현 잔액	3,010,549

4,5월 예배준비

		예배실	예배 인도	성경봉독	헌금 / 안내
사순절 5주	4/7	4층 아트컬리지5실	이춘우	김용성	이기령
사순절 6주	4/14	4층 아트컬리지5실	정용섭	유인규	윤혜정
부활절	4/21	2층 세미나1실	박재진	채진진	오미영
부활절 2주	4/28	2층 세미나1실	이춘우	윤동희	양혜선
부활절 3주	5/5	2층 세미나1실	박재진	고중홍	박수진

3월 31일 설교 “하나님과 화해” 발췌

인생 실패 너머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한 것이라는 말을 실질적으로 생각 하십시오. 삶에 대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말은 종교적으로 가벼운 수사로 떨어 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그야말로 인생 실패입니다. 고전 1:23절이 말하듯 이 십자가 처형은 유대인들에게 거리낌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옛날이 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런 인생에 떨어질까 노심초사합니다. 이런 삶의 태도가 바로 17절이 말하는 ‘이전 것’입니다. 이전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이 오기 전까지만 설득력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이 오면 빛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전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전 것은 빛을 잃었습니다. 유대 종교 권력자들과 로마 정치 권력자들은 이전 것에 속합니다. 그것은 이미 지나 갔습니다. 사람들이 인생 실패라고 보았던 십자가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 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이제 인생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습니다. 두려움에 서 벗어난 것을 가리켜 죄가 용서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자신은 인생 실패하기 싫다고 말할 분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속으로 생각 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십자가 처형과 같은 찌질하고 피곤하고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입니다. 제 자식들도 그렇게 살지 않았으 면 합니다. 우리교회 교우들도 인생 실패라는 말을 듣지 않았으면 합니다. 저는 두 가 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인생 실패와 반대되는 인생 성공을 거두어도 그것 자체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 가장 잘 나가던 두 인물을 손에 꼽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대의 최고법정인 산헤드린 공회 책임자이고, 다른 한 사람은 총독 빌라도입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진리를 세우고 정치적인 정의를 실현했다고 큰소리 치고 여기에 가담한 이들과 만찬을 나누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었겠지만 오늘날 아무도 그 들의 행동을 의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난 역사에서 잘 나가던 다른 사람들도 시간과 더불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시간의 힘 앞에서는 사람들이 판단하는 인생 성공과 실패가 무의미합니다. 모두 스쳐지나가는 바람과 같습니다.

2) 사람들이 인생 실패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처형을 감당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는 자기 인생이 실패할까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걱정으로 인해 서, 그리고 자포자기로 인해서 온갖 악행이 발생합니다. 그 어떤 인생에도 실패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그는 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이걸 사실적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인생이 고달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은 인생 실패를 미리 겁먹지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으면 좋고, 실패해도 괜찮은 겁니다. 여기서 실패여부는 악행을 저질러도 좋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가 팔복에서 말하는 그런 운명을 가리킵니다. 가난하지 않으면 좋고, 가난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 가난한 삶에 이미 예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가 지옥에 계시다면 자신은 지옥을 택하겠다고 말입니 다.

여러분은 지금 행복하신가요? 생명의 영으로 충만하신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말하고 싶겠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고정관념에 묶여서 생명 충만이 무엇인지를 미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구구절절한 여러분의 인생에 맞춤형의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매주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을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의 도움에 기대서 전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라는 바울의 호소가 여러분의 영혼에 거룩한 여운으로 자리하기를 바랍니다.